

2004년 한국 비구니 주제 국제학술회(5월 20~22일) 및 세계 여성불교대회(6월 27일~7월 6일) 개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비구니 위상 강화 방침 발표...

조선 비구니원, '왕실護佛' 지탱

이기운 씨 '설치와 변천과정' 추적 논문발표

왕실 여인들 출가 귀의처로 불당화

정업원의 인수·자수·안일원 등 존재

한국불교 출가승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조선시대 왕실 비구니원(比丘尼院)의 설치와 변천 과정을 추적한 논문이 발표됨. 예정이서 주목받고 있다.

동국대 강사 이기운씨는 역사학회가 이따 말 발간하는 계간 학술지 <역사학보> 178호에 '조선시대 왕실의 비구니원 설치와 실행'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조선시대 왕실 불당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한 논문은 간혹 있었으나 비구니원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주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이 씨는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여인들이 불교에 귀의하여 생활을 보낸 불당(佛堂)으로 공식적인 정업원(淨業院) 외에도 인수원(仁壽院),

자수원(慈壽院), 안일원(安逸院) 등이 있었다"고 밝히고, "왕실 비구니원은 칙령을 내세운 조선시대에 내불당과 함께 왕실 불교의 한 축을 지탱함으로써 조선왕실로 하여금 꾸준히 호불의 경향을 유지하게 한 근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업원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왕실여인들의 출가 귀의처였고 인수원, 자수원은 원래 전왕 후궁들의 거처인 인수궁, 자수궁으로 설치되었다가 처차 정업원과 같이 불당화 된 곳이다. 안일원 또한 마찬가지.

◇정업원= 고려시대부터 유래한 전

통적인 왕실 여인들의 출가 귀의처로 조선시대에도 공식적인 왕실 비구니원의 역할을 이었다. 왕실에서 주지를 임명했으나 유신들의 첩계 요구 속에 몇 차례 첩계와 복원을 거치면서 인수원, 안일원 등으로 불렸다. 명종 이후 인수원에 소속되었다가 현종 때 첩계됐다.

◇자수원= 조선시대 선왕 후궁들의 거처였다가 이들이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불당화 때 후대까지 왕실여인들의 신행처 역할을 했다. 문종때 세종의 후궁들이 자수원 비구니가 되었고 세종 때에도 태종 문종의 후궁들이, 성종 때에는

세조와 예종의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었다.

◇인수원= 명종 때 기존의 인수궁을 수리하여 선왕 후궁들의 거처로 삼으면서 불당이 되었는데, 정업원을 인수궁에 포함시켜 수리하면서 정업원이 인수궁에 속하게 되어 이후 유신들은 정업원으로, 왕실에서는 인수원(宮)으로 불렸다. 선조~광해군 때 다시 정업원으로 불리다가 현종 2년 자수원과 함께 첩계된 것으로 보인다.

◇안일원= 고려시대에도 보이고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단종 때 처음 보인다. 명종 초에는 세간에서 정업원을 안일원으로 부르기도 하였다고 하여 정업원이 황폐화된 기간 동안 안일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혼칭하여 불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이밖에도 일시적으로 설치된 비구니원은 더 있었다"며 "개인 문집이나 비문 등의 연구를 통해 실행에 대한 부분까지 밝혀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정명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절(10)

석굴암의 불상들

화려하고 거대한 석굴사원이 많지만 그 가운데 석굴암이 우뚝 솟은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짜여진 건축과 한국 불상의 고전이 되는 조각이 만났기 때문이다. 석굴암의 조각은 통일신라 조각의 절정인 8세기 중엽 경덕왕 때 조성되었고, 당시의 다양한 조각이 한자리에 모인 곳이 석굴암이다. 본존불에서 느끼는 위엄, 십일면관음상의 우아함, 10대

하였다.

몸짓만 사리어도 흔들리는 구슬소리 / 옷자락 겹친 속에 살결이 피비치고 / 도도록 내민 젓가슴 숨도 고이 쉬도다.<십일면관음> 중에서)

수많은 장신구와 천의 자락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은 구슬들이 부딪치는 소리



석굴암 감실 보살좌상. 석굴암 조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조각이다.

가 들리는 듯하며, 차가운 틀에서 들리는 솜속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얼굴은 높은 부조로 명료하게 새겼지만 몸은 돌 속에서 스며나오듯이 얇게 표현하였다.

그런데 석굴암 조각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위용이 넘치는 본존불과, 화려함과 우아함을 뽐내는 십일면관음상에서 잠깐 눈길을 위로 돌리면 의외로 감미로운 조각을 만나게

“몸짓만 사리어도 흔들리는 구슬소리

옷자락 겹친 속에 살결이 피비치고

도도록 내민 젓가슴 숨도 고이 쉬도다”

존불은 이전의 불상보다 살집이 올라 첫 눈에 육중한 체구가 보는 이를 압도한다. 그런데 워낙 얇은 옷이 몸에 딱 달라붙었기에 옷 속으로 젓가슴이 도드라졌지만, 상 전체에서 풍기는 권위는 이러한 육감적 표현을 사소하게 보이게 한다. 그렇지만 오른쪽 겨드랑이에 세 줄로 표현된 옷 주름은 간략하면서도 힘있게 맺혀 있어 자못 기운생동하다.

본존불 뒤에는 우아한 자태의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왼손에 장병을 쥐고 오른손으로 영락을 잡아당기며 조심스럽게 서있다. 감성적 시인은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

된다. 오른쪽 세 번째 감실에 모셔진 보살상은 왼쪽으로 뒹군 고개를 손등으로 가볍게 괴고, 오른손은 쪽 뺨이 비스듬히 풀려 앉아 오른발을 가볍게 감싸고 있다. 고결함을 간직한 채 달콤하게 꿈꾸는 듯, 깊은 사색에 잠겨 있고, 풍요하면서도 섬세한 부드러움이 온몸을 감싸고 있다. 은화한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박한 광배가 화음을 이루면서 우리를 자분한 승결로 휘감아 준다. 사람을 압도하는 신성한 속에서 습동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상이 바로 이 감실의 보살상이라.

■경주대 문화재학부



한국불교미술사학회가 부처님 고행상으로 유명한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서 불상 실측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불교미술원류를 밝힌다

문명대 교수, 파키스탄 불상 조사보고서 발간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원류로 주목받아 온 간다라 미술의 전모를 밝히려는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 지난 해 8월과 올 2월 파키스탄의 주요 5개 박물관에 소장된 간다라 불상 2천5백여 점을 조사하고 돌아온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가 최근 그 조사보고서인 <파키스탄 박물관의 간다라 불상 조각 연구>를 펴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세계에선 처음으로 파키스탄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간다라 불상 전체를 실측 조사했다는 점에

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문명대 교수는 "간다라 미술의 중심지인 파키스탄에 간다라 불상 수천점이 있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다"며 "전체적 관점에서 체계화 시킴으로써 불교미술의 출발점인 간다라 불상조각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년도(~2004년 7월) 마애불과 사원 현지 조사, 3차년도(2004년 8월~2005년 7월) 주요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 이어 국제학술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동산문화재 도난방지·보존처리에

국고 6억 7,400만원 긴급 지원

문화재청은 도난위험과 훼손우려가 있는 국가 지정 동산문화재 9건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 6억 7,400만원을 긴급 투입, 도난방지시설과 보존처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교문화재는 모두 6건이다. 국보 298호 갑사 삼신불패불탱(사지)의 도난방지를 위해 화상감시시설(CC TV)을 설치하고 보물 578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후불탱 등 4건은 보존처리를, 보물 980호 화성 불림사목아미타불좌상은 보호시설인 대웅전을 보수한다. 보물 575호 대승사목각탱부관계문서는 보존처리와 함께 급고도 설치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등 특집

'문화재기능의 맥' 2호

<문화재 기능의 맥> 2호(사지)가 최근 발간됐다.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신응수)가 지난해 5월 창간한 <맥>은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을 위한 소식지로서 성격이 짙지만 우리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훌륭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국내 목조건물의 대표 격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경천사 10층석탑의 보존처리 및 복원 현황 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공사에 마지막 원력을 바친 드잡이 흥정수씨의 인물 탐방도 눈에 들어온다. (02)3672-8803

희담석 mahamall.co.kr
미하몰이 추천하는 효도선물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전하는 감사의 선물- 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희담석 방석
● 고급소재(가죽) 198,000원
● 색상: 연카키, 실구석



희담석 찜질팩
● 전량소재(가죽) 38,000원



희담석 보판
● 고급형 보판 4,000,000원
● 1인용 보판(보통) 2,300,000원
● 2인용 보판(원형) 13,000,000원
● 1인용 보판(원형) 11,000,000원

“생명의 돌, 생활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의 오지에서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 유익하며, 방송되는 정제희담석의 결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나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재료인 자동경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무의한 에너지가 가진 것만을 원산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방석과 희담석 찜질팩은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제조원
(주)자원넷
JAWONNET CO., LTD.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